



폐허로 변해 버린 새연교 주차장 6일 서귀포시 새연교 주차장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떠밀려온 바위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상국기자

태풍 '힌남노' 제주섬 곳곳 생채기

최대 900mm 폭우·고산은 최대풍속 초속 42m 넘어
태풍 관련 제주소방 출동 326건... 6일 새벽에 집중
전북대 전도·전선 유실돼 1만 가구 이상 정전 피해

추석을 앞두고 들이닥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기고 제주섬을 떠났다. >>관련기사 3·5·6면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울릉도 북동쪽 약 280km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다. '괴물 태풍'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게 태풍 힌남노는 여전히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의 강도 '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제주를 핏댄 '힌남노'는 강풍·폭우와 함께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 먼저 지난 4일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시 187.3mm >오동 300.5mm >대흘 240.5mm >서귀포 157.9mm >강정 220.5mm >성산 123.0mm >송당 210.5mm >고산 266.3mm >대정

278.0mm였고, 산지인 윗세오름과 삼각봉은 각각 951.5mm, 835.5mm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최대풍속은 초속으로 >제주시 27.8m >서귀포 16.5m >성산 28.4m >고산 42.5m >윗세오름 31.1m 등이다. 제주소방이 태풍 관련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6일 낮 12시 기준 326건 (인명구조 11건·안전조치 270건·배수 45회)에 달한다. 주요 출동 사례를 보면 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차량을 몰던 A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구조됐으며, 같은날 5일 오후 8시56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 주택이 만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당한 거주자 2명이 소방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6일 새벽 서귀포시 새연교 주차장에서는 강풍으로 성인 남성 몸무게보다 무거운 거대한 바위들이 무더기로 날아왔으며, 같은날 대정읍 한 공터에서도 정박된 보트가 인근 도로 한 가운데로 날아가기도 했다. 아울러 강풍으로 전봇대가 전도되거나 전선이 유실되면서 1만8053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6일 오후 9시 일본 삿포로 서북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될 예정이다. <이탈뉴스> seb1119@ihalla.com

제주 더이상 해일 안전지대 아니

도내 해일 관련 재해위험개선지구 4곳 지정·관리
태풍 내습 시 월파 피해... 증장기 대책 서둘러야

태풍 내습 시 마다 제주지역 해안과 항·포구 등지에서 월파,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도내 해안가 저지대의 경우 폭풍해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증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해일 위험지구는 제주시 탐동지구, 서귀포시 신흥1지구·위미1지구·토산지구 등 총 4개소다. 제주시 탐동지구의 경우 2009년 12월 지정됐고, 서귀포시 신흥1지구·위미1지구·토산지구는 2017년 1월 지정됐다. 해일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 모두 월파 등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해일 위험지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일 위험지구 외에도 제주 해안지대의 경우 태풍 내습 때마다 월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향후 제주지역에서도 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힌남노' 내습 시 서귀포시 예래해안도로에는 파도가 덮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고, 온평포구 해안도로는 월파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서귀포지역 대부분의 해안지대에서 월파 피해가 속출했다. 또 '힌남노'가 제주를 북상할 당시 제주지역 해안지대에는 두번의 만조가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안가 저지대에는 폭풍해일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해안가 저지대의 피해가 우려됐다. 다행히 '힌남노'가 제주를 통과할 당시에는 만조 시간대를 피하면서 우려되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태풍 내습 시 마다 반복되는 해안가의 폭풍해일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탈뉴스> 이태윤기자

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체계 가동

오는 15일까지 피해신고 접수... 자체 합동조사반 구성
제주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후속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

속처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접수·파손·배수 등 크고 작은 피해 총 403건이 확인됐으며 대부분 복구된 상태다. 주택 2건, 차량 2대, 상가 1건 등 총 5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정항과 신도항에서는 어선 2척이 전복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자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분야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탈뉴스> dhkang@ihalla.com

제주형 웰니스관광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

오늘 제주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형 웰니스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경경제포럼 박호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와 공동으로 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웰니스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단국대학교 장태수 교수이며, 좌장은 박호형 대표의원이다. 토론회에는 도 김애숙 관광국장, 한라대학교 현인숙 박사, 산림청,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제주관광공사 등 웰니스관광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웰니스관광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됐고, 제주 웰니스 관광정책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발전방향의 확산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탈뉴스> 이태윤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564
잠정집계 6일 <17시 기준> 누적 32만6110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2
FOR PEACE & PROSPERITY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

Beyond Conflict, Towards Peac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2022. 09.14.(수) ~ 16.(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포럼 홈페이지



제주포럼 유튜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